

‘야권의 심장’ 더민주-국민의당 양보 없는 대결

동남 을

박주선-이병훈 4년만에 ‘리턴매치’

국민의당 박주선 의원과 더민주 이병훈 후보가 4년 만에 또 다시 리턴매치를 벌인다. 박 의원과 이 후보는 각 당에서 단수 후보로 공천을 확정지었다. 두 사람은 19대 총선에서 당시 민주통합당이 동구를 무공천 지역으로 정하면서 모두 무소속 출마해 한판 승부를 벌였다. 당시 박 의원은 31.55%의 득표율로 당선됐고, 이 후보는 18.33%의 득표율을 올렸었다.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중연합당	무소속
이름	문중식	이병훈	박주선	황인용	고동술
나이	57	59	66	26	74
역력	·현 민주평통광주동구협의회 자문위원 ·현 국민대통합위원회 자문위원	·전 아시아문화도시 추진단장 ·전 광양군수	·현 국회의원 ·전 당 최고위원	·전 조선대 총동아리연합회장 ·현 민중연합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현 개혁신학원 대표이사 ·현 광주·전남 향목위원회 위원장

행정 관료 출신인 이 후보는 지난 19대 총선 이후 4년 동안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협동조합 ‘아시아도시재생연구원’을 설립하는 등 지역에서 지역민과의 소통에 주력하며 표심을 다져와 어떤 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국민의당 박주선의 의원은 20일 선거사무실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선거전에 뛰어들었다. 16대 총선에서 화순·보성에 무소속으로 나서 당선되며 정계에 입문한 박주선 의원은 이번 총선에서 4선에 도전한다. 동구에서는 3선 도전이다. 박 의원의 가장 큰 강점은 ‘경륜’과 ‘큰 정치력’으로 꼽힌다. 하지만, 정치적인 시련도 많았다. ‘4번 구수, 4번 무죄’라는 사법 사상 조유의 기록을 갖고 있다.

새로 편입된 선거구 지역민심 누가 잡을까 당락여부 최대 변수로 꼽힌다. 하지만, 정치적인 시련도 많았다. ‘4번 구수, 4번 무죄’라는 사법 사상 조유의 기록을 갖고 있다. 선거 변수도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선거구가 인구하한선(지난해 10월말 기준 14만명) 기준에 걸리면서 인근 남구 선거구 일부와 합쳐져 동남을 선거구로 변경됐다.

기존 동구 선거구에 남구 양림동, 방림1동, 방림2동, 사직동, 백운1동, 백운2동 등 6개 동(洞)이 합쳐진 것이다. 따라서 새로 선거구에 편입된 지역 민심을 누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될 수도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문중식 민주평통 광주동구협의회 자문위원이, 민중연합당에서는 황인용 조선대학교 총동아리연합회 26대 회장이, 고동술 학교법인 개혁 신학원 대표이사 등이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서구 을

양향자-천정배 ‘다윗과 골리앗’

국민의당 천정배 공동대표와 더민주 영입 인재 양향자 후보가 격돌하는 서구가 최대 관심 지역구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선 당 대표의 관록과 삼성전자의 고졸 출신 첫 여성임원으로 ‘휴수저 성공신화’를 쓴 신인의 패기가 격돌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된다.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이름	김연옥	양향자	김하중	천정배	강은미	고기담
나이	49	49	55	62	45	48
역력	·전 청와대 행정관 ·전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 운영위원장	·전 삼성전자 상무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	·현 전남대 로스쿨 교수 ·전 광주지검 목포지청장	·현 국회의원 ·전 법무부장관	·현 당 서구위원회 위원장 ·현 광주중앙공원 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	·전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노동위원장 ·현 민주노동당 광주전남본부 비정규직국장

국민의당 천 공동대표의 6선 성공을 양 후보가 저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국민의당에서 출마를 준비한 김하중 예비후보가 천 대표와의 경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무소속 출마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후보의 최종 판단에 따라 선거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양 후보는 뒤늦게 뛰어들 만큼 하루 24시간을 쪼개 얼굴 알리기에 주력하

지만, 지난해 4월 보궐선거에서 더민주 전신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대대적인 공세 속에서 52.4%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지력이 있는 만큼 향후 선거일까지 어떻게 민심을 잡을지 주목된다. 새누리당에서는 청와대 대통령실 행정관을 지낸 김연옥 후보가, 정의당에서는 광주시의원을 지낸 강은미 광주 중앙공원 시민네트워크 공동대표가, 민중연합당에서는 통합진보당 광주시당 노동위원장을 지냈던 고기담 민주노동당 광주전남본부 비정규직 국장이 출마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북구 갑

변호사 對 변호사 맞대결

더민주의 지난 18일 전략공천을 통해 37세의 변호사 정준호 후보를 깜짝 카드 내세웠다. 하지만 이를 두고 지역 내에서는 말이 많다. 지역 내의 인지도가 거의 없는 인사라는 점에서 경쟁력을 갖췄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당장 공천 배제된 강기정 의원은 “어전히 당은 저와 우리 당원, 광주시민의 자존심은 안중에 없는 듯 하다”고 불만을 나타냈으며 북갑의 시·구 의원 10명도 “당원, 광주, 지역민을 버린 중앙당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중연합당	무소속
이름	정준호	김경진	장세레나	박대우
나이	37	49	45	48
역력	·현 변호사 ·전 대검 법무관	·현 김경진 법률사무소 대표 ·전 광주지검 부장검사	·현 광주여성회 공동대표 ·현 황기연제품협동조합 이사장	·전 TBN 진행자 ·전 지역발전 정책 연구원장

이에 따라, 정 후보가 지역 내의 반발을 잠재우고 전열을 정비, 더민주 지지층의 결집을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당장 공천 배제된 강기정 의원은 “어전히 당은 저와 우리 당원, 광주시민의 자존심은 안중에 없는 듯 하다”고 불만을 나타냈으며 북갑의 시·구 의원 10명도 “당원, 광주, 지역민을 버린 중앙당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정 후보가 지역 내의 반발을 잠재우고 전열을 정비, 더민주 지지층의 결집을 어떻게 유도하느냐가 관건으로 꼽히고 있다.

국민의당 김경진 후보가 나서고 있다. 광주지검 부장 검사 출신의 김 후보는 국민의당 후보 경선에서 김유정 전 의원과 국성근 교수를 누르고 공천됐다. 그는 지난 18·19대 총선에서 출마, 분루를 삼킨 바 있어 3선4기에 나서고 있는 셈이다. 김 후보는 인지도가 높고 성실성이 강

새누리당에서는 후보를 내지 못했고, 민중연합당에서는 광주여성회공동대표인 장세레나 후보가 나서고 있다. 장 후보는 과거 진보정당의 지지층을 다시 결집 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무소속으로는 전 지역발전연구원장을 지낸 박대우 후보가 뛰고 있다. 박 후보는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싸잡아 비판하며 틈새를 파고들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북구 을

전직 대통령 비서관 출신 대결

광주 북구를 총선은 새누리당 이인호,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민의당 최경환, 민중연합당 윤민호, 무소속 노남수 후보 등이 경쟁을 하게 됐다. 여기에 국민의당에서 공천 배제된 임내현 의원도 무소속 출마를 고심하고 있어 본선 대결하는 후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 지역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의 이형석 후보와 김대중 전 대통령 측의 최경환 후보가 경쟁을 하게 돼 주목을 끌고 있다.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민중연합당	무소속
이름	이인호	이형석	최경환	윤민호	노남수
나이	52	54	56	45	46
역력	·전 전남대 객원교수 ·현 호산피앤디	·전 광주시 경제부시장 ·전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전 청와대 공보기획비서관 ·현 전남대 객원교수	·현 북구교육네트워크 공동대표 ·현 광주역·철길 시민환경대책위원	·전 광주시 시민안전관 ·현 광주장애인 문화협회 후원회장

이 후보는 평범한 은행원에서 출발, 노조위원장을 거쳐 정치권에 투신해 광주시의원과 참여정부 청와대 비서관, 광주시경제부시장을 지냈다. 전국 최연소 광역의회의원장(광주시의회의원장)을 지내며, 지

다. 최 후보는 김대중 전 대통령 마지막 비서관 출신답게 호남의 정치적 위기 상황을 ‘뉴 DJ’ 바람으로 극복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최 후보는 국민의 정부 청와대 공보비서관을 지내며 쌓은 국정 전반에 걸친 풍부한 경험이 강점이다. 최 후보는 김 전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지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정치와 사회 전반을 바라보는 DJ의 철학과 안목을 전수받았다. 그는 지난 19대 총선 경선에서 임내현 의원에게 181표 차이로 석패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산구 갑

3선 관록이냐 신인 패기냐

광주 광산 갑에선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후보가 공천을 확정짓고 맞대결을 벌인다. 3선 의원의 관록과 의사이자 시민운동가 출신인 신인의 패기가 격돌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비유된다. 김 의원은 전남 속의배심원단 투표 3차 경선에서 김경록 국민의당 대변인과 윤봉근 전 제6대 광주시의회 의장을 제치고 공천을 확정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88년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광주 지역구에서 4선에 도전하게 됐다. 지난 17대 당시 처음으로 국회에 입성한 김 의원은 열린우리당 원내부대표와 통합민주당 정부조직개편특별위원회,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이름	정준	이용빈	김동철	나경채	김해정
나이	67	52	61	42	38
역력	·현 광산구청에인협 회장 ·현 21C 주민자치 참여연대 공동대표	·현 광주외국인노동자 건강센터 이사장 ·전 광주비정규직센터 이사장	·현 국회의원 ·전 17·18대 국회의원	·현 정의당 공동대표 ·현 케이비티비 독점규제·나경채 해소 대책위 집행위원장	·현 학교비정규직노동자 광주지부교육국장 ·전 광주비정규직센터 이사장

순환규제로 분류되는 김 의원은 3선을 거치는 동안 당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광주의 대표적 정치인으로 성장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더민주에 영입된 의사 출신 이용빈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이사장이 김 의원의 맞선대로 나선다. 이 이사장은 ‘광주외국인노동자건강센터’ 이사장으로 10년 동안 재직하면서 200

운동가로 사회적 약자들이 당면한 의료 문제와 어린이 및 청소년 문제, 비정규직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에 매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의원과 이 이사장은 새누리당 정운하 후보, 정의당 나경채 후보, 민중연합당 김해정 후보와 본선에서 경쟁을 치른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국민의당 서구갑 선거구는 정치신인 가산점 논란으로 재심이 신청됐고, 동남갑 선거구는 20일 밤 9시30분 현재 결선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며 중앙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대로 지면에 실을 예정입니다.

광산구 을

전·현직의원 격돌 최대 ‘빅매치’

국민의당 광주 광산을 후보로 권은희 의원이 확정되면서 전·현직 의원간 ‘빅매치’가 성사됐다. 권 후보는 2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속의배심원단 경선에서 고원·최선숙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공천을 받았다. 권 후보는 76.2% 고 후보와 최 후보는 각각 11.9%의 지지를 얻었다. 이에 따라 권 후보는 더민주가 일찌감치 단수 공천한 이용섭 전 의원과 본선에서 맞붙게 됐다.

정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민중연합당	무소속	무소속
이름	이용섭	권은희	문정은	최경미	김중구	한남숙
나이	64	42	29	48	48	61
역력	·전 건설교통부 장관 ·전 행정자치부 장관	·현 국회의원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비서실장	·현 정의당 부대표	·현 광산구교육회합 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전 광산구의원	·전 국민은행 근무 ·현 현대자동차 근무	·현 동원산업 이사 ·현 한국레미콘 대표

이 전 의원은 광산을 선거구에서 재선을 한 만큼 아직까지 탄탄한 조직력을 갖췄다는 평가다. 그러나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광주 시장 출마를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 뒤 2년도 안 돼 또다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다는 점이 지역민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지 주목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권 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지 1년6개월여밖에 되지 않았지만, 광주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국립공원 무당성 정상군부대 이전사업의 물꼬를 트는 등 의정 활동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두 후보가 모두 당내에서 비종교인 사할을 걸 것으로 보여 4·13 총선의 최대 격전지가 될 전망이다. 두 후보는 정의당 문정은 후보, 민중연합당 최경미 후보, 무소속 김중구·한남숙 후보와 본선을 치른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